

# 한·미 을지훈련 한국이 첫 주도

## 2012년 전작권 전환 대비...미군은 지원 김관진 前 합참의장 '선임 관찰관' 참여

한반도 안전보장과 한·미 연합 방어태세 유지를 위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18일 오전 6시 30분께 시작됐다.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에서 명칭을 바꾼 UFG 연습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실시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연습(CPX)이다. 1975년 첫 연습이 시작된 이래 34회째를 맞는 이번 연습은 군단, 합대, 비행단급 이상

지휘부 등 5만6천여 명의 한국군과 해외 전개 미군 및 주한미군 1만여명 등이 참가하며 위기상황 조성보고, 위기관리연습, 모의지원연습, 훈련강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 군은 연합훈련 사상 최초로 한측 합동군사령부(JFC)와 미 한국사령부(US KORCOM) 등 각각 독립된 사령부를 편성했다. 김태영 합참의장과 월터 사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를 각각 지휘한다. 특히 UFG 연습에는 김관진 전 합참의장(예비역 대장)과 윌리엄 클라우지 예비역 대

장이 각각 양측 '동맹구조 선임 관찰관'으로 참여했다. 선임 관찰관은 연습의 진행과정을 관찰해 그 결과를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합참 관계자는 "전직 합참의장이 UFG 연습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UFG 연습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달 10일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UFG 연습 일정을 북측에 통보했다. 북한은 이와 관련, 18일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합동 군사연습은 우리의 전략적 거점에 대한 미제 침략군의 새로운 복합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한 뒤 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사임

## 탄핵 개시 앞두고 백기...8년 10개월 철권통치 종식



탄핵 압력이 시달려온 페르베즈 무샤라프(사진) 파키스탄 대통령이 집권연정의 탄핵 절차 개시를 하루 앞두고 결국 백기를 들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대국민연설에서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법률 자문 및 정치적 동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 미래를 국민의 손에 맡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중으로 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1999년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8년 10개월간 이어진 무샤라프의 철권 통치가 정식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집권연정의 탄핵 절차 개시를 하루 앞두고

고 나온 무샤라프 대통령의 사임 발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순이다. 파키스탄인민당(PPP)과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N)이 주도하는 집권 연정이 지난 2월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상·하원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한데다 무샤라프를 지지했던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Q)에서도 이탈 세력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샤라프의 권력기반인 군부와 정보부(ISI) 등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과거 대 테러전 파트너로 무샤라프를 감쌌던 미국마저 등을 돌리면서 무샤라프가 국회 해산이나 국가 비상사태 선포 등으로 맞설 여력도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강력한 탄핵안을 마련한 집

권연정이 탄핵 절차 개시 전날까지 사임 가능 시한으로 정함에 따라 무샤라프는 처벌로 이어질 탄핵을 고집하기보다는 자진사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샤라프는 이날 마지막 연설에서 "나에게 제기된 어떠한 탄핵 사유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며 집권연정의 탄핵 추진이 부당함을 항변했다.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 직전 사임을 선택함에 따라 무샤라프는 8년 10개월간의 통치 기간에 저질렀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치권의 상황이 변화 무쌍한 만큼 그가 퇴임 이후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 李 대통령-후진타오, 25일 서울서 한·중 정상회담

## 후 주석 1박 2일 일정 방한...북핵 협력 방안 등 논의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서울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양국은 18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후 주석이 25-26일 1박2일간 한국을 국빈방문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으로, 양 정상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방중 이후 이번에 세번째 만나게 되는 것이다. 후 주석은 주석 취임 이후 두번째 한국 방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5월 회담에서 합의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방안과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또 이번 회담을 통해 유엔과 각종 지역 협력기구에서의 협력, 기후변화 관련 협력,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및

이 밝혔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분야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에너지 절약 협력 양해각서 ▲사막화 방지 양해각서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 운영 및 유지 협력 양해각서 ▲철단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양해각서 ▲한중 교육교류약정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복원 협력 강화 양해각서 등에 서명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또 이번 회담을 통해 유엔과 각종 지역 협력기구에서의 협력, 기후변화 관련 협력,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및

국제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협력 등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후 주석은 25일 정상회담과 국민만찬에 이어 26일에는 한중 청년대표단 공동 집회, 국회의원·국무총리 면담, 상하이·여수 박람회 교류 세미나 참석, 경제4단체장 주회 오찬 참석 등의 일정을 갖게 된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후 주석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5월 합의된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후 주석의 이번 방한은 중국 국가주석으로서 최초로 재임 중 두번째로, 특히 베이징 올림픽 폐막 다음 날 방한하는 것은 한중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루지야 영토내 러시아군 전차. 국제사회가 그루지야 영토에서 러시아군의 조속한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 전차들이 18일 그루지야 고리시 외곽 도로에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

# 공공기관 감사도 줄줄이 낙하산 정치권 출신 잇따라 임명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공기업 등 전문성과 관계없는 공공기관 감사에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 18일 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삼일감사를 두고 있는 54개 공공기관 가운데 10여 개 기관의 감사가 공모절차 등을 거쳐 새로 임명됐고 현재 10개 이상의 기관에서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4일 임시주총에서 조영래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감사를 이 공사의 감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조씨는 한나라당의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다. 역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김공자씨는 보험복지의료공단

의 감사에 임명됐다. 제16대 의원 출신인 이만재 전 서울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지난날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로 선임됐다.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위 관련 인사도 감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내고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준비위원회를 맡았던 김주철 전 교원대 초빙교수는 사학연금관리공단 감사에 선임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언론특보 출신으로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김해진씨는 철도공사 감사로 일하고 있다. 이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낸 김

용한씨는 토지공사 감사가 됐다. 이밖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기업 자회사의 감사에도 정치권 출신들이 들어오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날 임시주총을 열어 이정원 전 천안시의회 의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이씨는 발전과 관련 전문성이 없다. 한편 산하 공공기관이 70개나 되는 지식경제부는 산하기관 감사 임명 현황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기업과 중정부기관 감사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하며 기타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 北, 금강산 체류 인원 200명 미만 감축 통보 현대아산, 필수 인원 남기고 내일까지 철수

통일부는 18일 "북한 명승지개발지도국에서 지난 14일 밤 현대아산측에 20일까지 금강산관광지구 내 체류인원을 200명 미만으로 줄이라고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현대아산은 20일까지 세부 철수계획을 시행, 199명만을 잔류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18일 현재 금강산에는 현대아산 직원 25명을 포함한 한국인 114명과 외국인 422명 등 536명이 체류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현재 금강산에 체류하고 있는 본사 직원 25명이 최소 필수 인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빼내지 않고 계약제로 고용하고 있는 재중동포 259명 가운데 84명만 남기고 모두 귀환시키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강산에 체류 중인 536명 가운데 18일 104명이 철수하며 19일에는 83명, 20일에는 150명이 철수해 20일 이후에는 금강산에 199명만 남게된다. 한편 현대아산은 최근 귀환한 직원들에 대해 휴가를 줬으며 조만간 조직 개편을 통해 인원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필 주한 미군사령관 "주한미군 감축 없다"

조지프 필 주한 미8군사령관(육군 중장)은 "주한미군의 감축은 없을 것"이라며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합의한 주한미군 추가감축 중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필 사령관은 한국에 부임하는 미 국방부 소속 교사들과 지난 15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는 오히려 전력을 조금 더 보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장병 순환근무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 한국에서의 삶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미군 동반 가족을 위해 보다 많은 학교와 탁아시설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월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상담접수중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 국가직무능력시험 최우수 등급 - 농산물품질관리사 2008년 1차 2차 시험 합격 ☎ 시 : 02-149-1111 / 1112 / 1113 / 1114 / 1115 / 1116	고급반 1개년 수강료 80% 지원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스피치 리더십 과정

시범기관인 노벨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경영 지도자 과정

스피치 리더십 과정